

29. 작은 뿔의 실상

2012. 7. 1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빛 새벽 시간의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는지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는데, 먼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연결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이 어리둥절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넷째 짐승에게서 나온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부탁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단7:23~25]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뜨릴 것이며 24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1.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제가 봉독한 같은 내용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작은 뿔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니까 성경에 그 뿔에 대한 기록을 다시 봉독하신 것이지요?(예) 지난 시간에 작은 뿔의 생김새와 행사와 그것이 작게 시작하여 커지게 된 역사적 상황 등을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은 그 뿔이 역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더 분명하게 말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 그래야 하겠지요. 분명하게 말하기 위하여 지난 시간에 말한 것 중에서 잠깐 다시 말해야 할 것이 있군요.

- ① 나오는 곳: 넷째 나라인 로마에서 나온다.
- ② 나오는 때: 넷째 짐승에서 열 뿔이 나온 후, 즉 로마 제국이 망하고 열나라가 일어난 후에 나온다.
- ③ 나라로서의 성질: 열 나라와 같은 면과 다른 면이 있다.
열나라는 정치적 왕국뿐이나 이 뿔(나라)은 눈과 입이 있다. 눈은 보는 기능이고, 입은 말하는 기능이다. 이것은 나라들을 살피고 나라들을 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류보다 강하여 보였다. 이것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다.
- ④ 하나님과의 관계: 큰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
- ⑤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 ⑥ 성도와와의 관계: 하나님의 참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여 싸워서 이긴다.
- ⑦ 전성 기간: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세력을 떨친다.
- ⑧ 최후의 운명: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망한다.

우리는 예언을 연구하는 세 원칙에 의해 이 뿔의 역사적 정체를 찾아야 합니다. 세 원칙은 ① 예언의 내용을 잘 읽을 것. ② 그 내용의 성경의 해석을 찾아볼 것. ③ 그 예언의 역사적 성취를 역사에서 주의해서 찾을 것 등이지요.

이제 말한 여덟 가지 성질의 나라를 역사에서 찾으면 하나만이 이 사실들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분의 때와 법을 바꾸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교적 세력이면서 또한 정치적 세력으로 나라까지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오직 한 세력만이 이 사실들에 꼭 들어맞는다는 사실까지 이야기했지요. 애청자들께서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것인데, 곧 교권 로마라는 이야기도 했지요.

이 세력은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했습니다. 교권로마라고 말했는데, 교권로마가 때와 법을 변개하려고 했는지 역사적으로 확인할 차례이지요. 우선 때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때와 법**을 각각 분리하여 이해하려는 사람과 함께 합쳐서 같은 사항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때**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이정표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법**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쳐서 보는 편은 **때에 관한 법 곧 때에 관한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실에 의하여 작은 뿔 곧 교권로마의 세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정표를 변경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실제로 그 영역은 건드릴 수 있는 영역도 아니지요. 그러므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 것은 성도를 괴롭게 할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입니다. 곧 성도의 생활 지침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특히 생활의 자료로 주신 시간과 관련된 계명을 변경하려 했을 것임을 짐작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역사에 이루어진 때와 법을 변개한 사실을 살펴보면,

먼저 교권로마의 십계명을 살펴보자.

천주 십계

일. 하나이신 천주를 흠송하라.

이.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삼.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사. 부모에게 효도하라.

오. 사람을 죽이지 말라.

육. 간음하지 말라.

칠. 도적질을 하지 말라.

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구.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십.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변기영 개역증편, 프리덴티노 공의회, 간추린 교리 문답,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발행, 1984년판, 72).

성경 출애굽기 20:1~17에 기록된 하나님의 십계명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쉽게 구별되지요.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 계명씩 앞당겼고 마지막 계명을 둘로 나누어 십계명으로 만들었지요.

또 제4계명 곧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주일을 지키라고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바로 때에 관한 법입니다.

교권로마는 이상과 같이 분류한데 대하여 변명이 있는데, 일 계명을 준수하는 자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우상에 대한 것을 따로 계명 조문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9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6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윤리적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마땅히 두 개의 계명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성경 자체에서 다만 십계명(신 4:13)이라고만 하였지 어떤 것이 일 계명이며,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 계명이라는 구분과 설명이 없기 때문에 교권로마의 십계명 분류를 성경과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비평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분들의 입장에서 합리적 변명이고, 또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변명하지 않고 **법을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때와** 관계된 **제4계명** 곧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분들의 분류로는 3계명이지요. 다음은 그분들의 주장하는 말들입니다.

문: 제3계에 명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에 명하시는 것은 천주께 공식 기도와 예절을 바치고, 육신의 일을 피하므로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것입니다.

문: 천주교회에서 구약의 안식일, 즉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천주교회에서 구약의 안식일, 즉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는 사도들이 예수께 받은 권으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신약을 구약과 구별하고 또 신약 시대 새 교회의 기원이 되는 예수 부활과 성신 강림이 일요일에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변기영 편, 간추린 교리 문답, 31).

오늘날 개신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한 것이 교권로마가 아니라고 열심히 말합니다. 지난봄쯤이었지요. 신문 광고에 났든가? 안식일교회가 이단이라고 주장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실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일요일에 대한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글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성경 외의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더군요. 아마 엘렌 화잇의 저서에 대하여 지적한 것 같은데요. 그런 주장은 우리교회가 엘렌 화잇의 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해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교회가 화잇의 글을 성경 외의 권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의 글을 읽으면 그는 오직 자기 글도 성경에 의하여 검증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글에 성경과 충돌되거나 다르게 말한 것이 없지요. 그는 1888년 8월 5일자로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를 탐지하는 놀라운 탐지기이다. 모든 진리는 그것으로부터 와야 한다. 성경은 모든 교리와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의 견해일지라도 성경과 비교해보지 않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성경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신적 권위이다.”(EGW to Brethren, Aug. 5. 1888,” 우리교회가 화잇의 글들이 영감 된 글이라고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신앙과 교리에 대하여 성경과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인정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교회에 대하여 쓴 그분들의 글을 보니 정말 신앙과 교리에 대하여 다른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신앙과 교리에 대하여 다른 권위를 주장한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분명히 다른 권위를 주장하면서 우리교회가 다른 권위를 주장한다고 말하는 곳에 당당히 적어놓았으니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어요.

2. 저도 그것을 읽어보았는데 어떤 내용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지금 분명히 기억이 안 되는데요.

답: 아마 목사님이 예사로 읽어서 그럴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카피를 찾아와야 하겠군요. 자, 보세요. 여기 다섯 가지를 적어두었군요. 이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답하는 시간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생각도 없는데, 읽어보지 아무튼 우리교회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자기들 생각을 마치 우리교회의 주장인 것처럼 적어둔 것 같네요. 그런데 밑에 있는 이 글이 바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좀 읽어보시겠어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날은 신약시대가 끝난 기 열 세기 후에 교황이 고친 것이 아니다. 신약에 벌써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후에 오래지 않아 저자들이 그것을 인정했다. 이레 중 첫째 날에 예배를 드린대 대한 언급은 교부의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으니 곧 기원 110년 안디옥의 감독 이나시오의 문헌과 기원 100~165년 순교자 저스친의 문헌과 120~150년의 바나바와 178년의 이레네오와 154년의 바다이산과 200년의 터툏치안과 250년의 오리겐과 200~258년의 기브리안과 300년의 알렉산드리아의 베드로와 315년의 유세비오 등등의 문헌이다.”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분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권위를 성경 외의 교부들의 글에 근거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정말 신앙과 교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데, 그것을 예배일로 지키는 권위의 근거가 목사님이 읽은 대로 교부들의 문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분들이 성경 외의 다른 권위를 신앙과 교리에 두었다는 것을 스스로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벌써 그렇게 되어 있었고”라고 했는데, 신약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찾아내는 성경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과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7이나 계시록 1:10 또는 고전 16:1 등등, 그 외에도 그분들이 찾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내가 3대째 장로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때 공격하려고 나도 많이 찾아봤지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권로마가 자기들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다고 당당히 주장하는데, 개신교에서는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성경 외의 다른 권위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잠깐 말한 것입니다. 때와 법, 곧 때에 대한 법을 변경했다는 주장을 그들은 교리책에서 당당히 말합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된 사실을 그분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 예, 목사님 설명을 듣고 이 유인물을 보니 정말 그러네요. 이분들은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들 주장에 대하여 말할 시간은 아닌 것 같고, 다니엘서 이야기를 계속하시지요.

답: 예,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중에 이 유인물이 생각이 나서 한 말씀 한 것입니다. 때와 법을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교권로마의 주장을 몇 개만 더 보지요.

Joseph Deharbe, A Full Catechism of Catholic Religion-가톨릭 신앙에 관한 완전 교리 문답서-73, 183, 209~211

문: 오직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교리들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답: 아니다. 우리는 전승(tradition)도 믿어야 한다....예로써, 만일 우리가 전승이 없이 성경만을 보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일요일 대신 유대인과 함께 토요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것이다.

문: 어느 날이 주님의 날(주일)인가?

답: 예전의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에 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 중의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이 주일이었다. 새 율법에서는 주일 중 첫째 날 즉 일요일이 주일이다.

문: 하나님의 계명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다른 계명이 있는가?

답: 그렇다. 교회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문: 우리가 지켜야 할 첫째 계명은 무엇인가?

답: 교회의 첫째 계명에 의해 우리가 첫째로 지키도록 명령된 것은, 교회가 제정한 일요일과 성일들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다.

문: 교회가 성일들을 금지시킬 수 있는가?

답: 교회는 성일들을 제정할 충분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그것들을 옮기거나, 시간과 환경이 그것을 요구할 때, 이를 어떤 장소에 국한시킬 권리도 있다.(Joseph Deharbe, A Full Catechism of Catholic Religion-가톨릭 신앙에 관한 완전 교리 문답서-73, 183, 209~211)

또 Challoner, The Catholic Christian Instructed-교육 받은 가톨릭신자-책 209~211에는

문: 토요일이었던 고대의 안식일보다 일요일을 지키는데 대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답: 우리는 이에 대해 가톨릭교회의 권위와 사도들의 전승을 가지고 있다.

문: 성경 어디에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라고 명한 데가 있는가?

답: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회의 말을 듣도록 명하고 있다.(마 18:17; 눅 10:16) 그리고 사도들의 전승을 고수하라고 명한다.(살후 2:15)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안식일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동일한 교회의 권위에 의해 제정된 다른 축제일들은 중요시 하지 않으면서 일요일을 경건하게 지키는 자인 것처럼 하는 것은 그들이 이성이나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분에 의해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일요일과 축제일들은 모두 같은 기초 즉 교회가 제정한 제도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Challoner, The Catholic Christian Instructed-교육 받은 가톨릭신자-209~211)

스티븐 키난(Stephen Keenan)은 그의 교리 문답서(A Doctrinal Catechism)에서 개신교회들이 일요일 준수하는 것을 비판하는 문답을 싣고 있는데, 조롱기 있는 문장을 구사하고 있으며, 계명을 변경한 가톨릭의 권위를 방어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개신교인들은 성경의 주제에 대해 모순되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답: 그렇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경에 명백히 설정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믿거나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려 하고 있다. 만약 성경이 그들의 유일한 규범이라면,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따라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계명이 바뀌지도 않았고 폐지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문: 교회가 계명상의 축제일을 제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는 무슨 방도가 있는가?

답: 교회가 이러한 권세를 가지지 못했다면, 교회는 현대의 모든 종교인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의 권위에 따라 변경된 것이 아닌데도, 제칠일 안식일 준수 대신에 일주일의 첫째 날인 일요일을 대치시킬 수가 없었을 것이다.

문: 개신교인들이 일주일 중 제칠일인 토요일에 일함으로써, 이를 모독하는 경우에도, 그들은 성경을 그들의 유일한 신앙 규범으로 따르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거룩한 책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분명히 쓰여진 허락을 발견하고 있는가?

답: 정반대이다. 그들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전승의 권위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토요일을 더럽힘으로써, 하나님께서 결코 폐지하지 않으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pp. 97, 98, 101, 174, 352)

콘웨이(Conway)는 질문함(Question-Box)이라는 책에서 가톨릭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음을 당당히 주장하며, 그것이 가톨릭교회의 권위를 증거하는 표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 안식일을 일주일의 제칠일에서 첫째 날로 변경한데 대해 성경의 어떠한 권위가 있는가?

누가 교황에게 하나님의 한 계명을 변경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했는가?

답: 만약 성경이 그리스도인을 위한 유일한 지침이라면,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은 유대인들과 더불어 토요일을 지키으로써 올바른 것이다. 그러나 가톨릭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워진 거룩하고 오류가 없는 권위에 의하여,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가톨릭교회는 사도 시대에 그 날에 있는 주님의 부활을 드높이고 유대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을 분명히 가려내는 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일요일을 쉬는 날로 만들었다.(p. 179)

여러 책에서 그분들의 주장을 읽을 수 있지만 그만큼 합시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때와 법을 변경하려는 한 세력에 대하여 예언하셨는데, 그렇게 한 세력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권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큰 영향을 행사하면서 성경 외의 권위를 주장하여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는 제칠일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그들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함이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역사적 사건들을 예언한 것이 역사의 현장에 전혀 오차 없이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언의 지도를 따라 바른 믿음으로 오직 성경이 인도하는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전4:6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단호히 경고했습니다.

4. 목사님 시간이 되었군요.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명백히 가르쳐주신 예언을 분명히 깨닫고 진리의 정로를 따라 신앙생활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